

『千金翼方·傷寒』에 대한 研究

¹釜山大學校 韓醫學專門大學院 大學院生 · ²釜山大學校 韓醫學專門大學院 人文社會醫學部 教授
閔裕理¹ · 柳姪我² *

A Study on the 『Qianjinyifang·Shanghan』

Min Yu-ri¹ · Lyu Jeong-ah²

¹Graduate Student at School of Korea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

²Professor at Division of Humanities and Social Medicine,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Objectives : *Qianjinyifang·Shanghan* is an important versions of *Shanghanlun*, but it was never introduced widely, and studies on its were not done a lot. Thus, the author seeks to study this book in order to find its special features, its relationship with other versions of *Shanghanlun*, and its status in the process of the transmission of *Shanghanlun*.

Methods : Dissertations on *Qianjinyifang·Shanghan* and dissertations that compare *Yuhanben* and *Songben* were studied. Sentences were numbered based on *Qianjinyifang·Shanghan*, *Tangbenshanghanlunjiaozhu* to compare with other versions of *Shanghanlun*.

Results : Sunsimiao brought the changes of “以法方類證, 方證同條 比類相附” in *Shanghanlun*. It organized Taiyangbing chapters according to their decoction pattern, and made Taiyangbing chapter name as 「太陽病用…湯法」. Chi-shi·ye was placed in front of Taiyangbingyongguizhitangfa. Jueyinbing and Liouhuibing were combined to one that were separated in *Yuhanben*. Shanghanyiji title was put in front of Yijipian to distinguish clearly from Sanyinsanyangpian. Sanyinsanyangpian and Yijipian contains many sentences that are missing in *Songben*.

Conclusions : *Qianjinyifang·Shanghan* is one of the major *Shanghanluns* that were saved by Jiaozhengyishuju I Northern Song Period, and it was put together as an independent book after the Ming and Qing dynasties. It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process of the transmission of *Shanghanlun* in 800 years, through 3C, 7C, and 11C. Moreover, when we compare the three books of *Qianjinyifang·Shanghan*, *Yuhanben*, and *Songben*'s Sanyinsanyangpian and Yijipian's sentences, we could know that they began from a common original text, but they became branched, and *Qianjinyifang·Shanghan* has a closer relationship with *Yuhanben*. Sanyinsanyangpian and Yijipian sentences can serve to supplement what is missing in today's *Songben*.

key words : Qianjinyifang·Shanghan(千金翼方·傷寒), Sun Simiao(孫思邈), Shanghanlun(傷寒論), Dangben(唐本)

* Corresponding Author : Lyu Jeong-ah.

Division of Humanities and Social Medicine,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49 Busandaehak-ro, Mulgeum-eup, Yangsan-si, Gyeongsangnam-do, 50612, Korea.

Tel: +82-51-510-8451, E-mail: Lyuja@pusan.ac.kr.

Received(Aug 3, 2018), Revised(Aug 16, 2018), Accepted(Aug 16, 2018)

Copyright © The Society of Korean Medical Classics. All rights reserved.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序論

『傷寒論』은 張仲景이 3C 초반에 저술한 것으로 추정되는 醫書이다. 張仲景이 편찬한 眞本은 散失되었고, 이후 北宋 校正醫書局이 『傷寒論』과 관련된 교정사업을 하기까지 800餘년 동안 여러 『傷寒論』 판본이 있었지만, 저술시기 및 진위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¹⁾ 이 가운데 비교적 이른 시기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며, 역사적으로도 확립된 전승본이 있는데, 『千金翼方』에 실린 「傷寒」이 그것이다. 이 전승본을 오늘날 『唐本傷寒論』이라 한다(이하 『唐本』).²⁾ 이 책은 唐代 유명한 의사인 孫思邈(581~682)³⁾이 『傷寒論』조문을 『千金翼方』에 실은 것이다. 『千金翼方·傷寒』은 1066년 북송 교정의서국에서 교정될 무렵까지 손사막이 저술했을 당시의 『傷寒論』조문의 모습을 대체로 간직하고 있었을 것으로 본다.⁴⁾

『千金翼方』은 7C 후반(681년) 손사막에 의해 成書된 후 1066년 북송 교정의서국 교정사업에 포함되어 교정·간행되었다. 그러나 북송 교정의서국 간행본 외에 다른 전승본도 유전되고 있어서 明代에 王肯堂은 친구 徐士彰으로부터 『千金翼方』을 구하여, 1606년(明代)에 그의 종질 王延鑿과 함께 『千金翼方』을 刊刻 하였다.⁵⁾ 이때까지 손사막이 수집하였던 『傷寒論』은 『千金翼方』 卷9, 10에 실려 전해졌다. 清代 王樸莊(1733-1803)은 왕궁당의 간각본을 저본으로 하여 처음으로 『千金翼方』 卷9, 10에 실려 있던 「傷寒」篇을 『千金翼方』에서 분리 하여 『傷寒論注』라는 한 권의 書가 되게 하였다. 이 書가 『唐本』의 始初이다. 이후 20C 후반에 『千金翼方·傷寒』 부분만 독립된 두 번째 단행본이 나왔는데, 錢超

塵이 校注한 『唐本傷寒論校注』이다. 소위 『唐本』은 넓은 의미로는 손사막이 7C 후반(682년)에 編述한 것으로 추정되는 『千金翼方』 卷9, 卷10에 수록된 “「傷寒」”을 말하고, 좁은 의미로는 清代 王樸莊 이후 『千金翼方』 卷9, 卷10에 실려 있던 「傷寒」篇을 따로 떼어 독립적인 서적으로 成書한 것을 일컫는다.

『唐本』은 唐代에도 『傷寒論』이 사라지지 않고 전승되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玉函本』과 유사한 판본으로 인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은 교정의서국에서 『宋本』을 교정할 때 “方證同條” 형식과 「辨瘧濕喝脈證第四」篇이 太陽病 條문 앞에 위치하고, 厥利嘔噦이 厥陰病篇에 포함되어 「辨厥陰病脈證并治」 1개의 篇으로 되는데 영향을 주었다.⁶⁾ 이러한 의미있는 『唐本』에 관한 기존 연구는 한국과 중국에서 석사학위 논문과 몇몇 논문에서 살펴볼 수 있으나, 최근에 이 주제에 대한 많은 연구는 이뤄지지 못했다.

한국과 중국에서 『千金翼方·傷寒』, 『唐本』을 주제로 삼은 논문은 『千金翼方·傷寒』을 중심 주제로 삼은 논문과 『唐本』을 다른 판본과 비교한 논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千金翼方·傷寒』을 중심 주제로 삼은 논문은 朴志英의 「『千金翼方·傷寒』에 대한 研究⁷⁾」가 있고, 『唐本』을 다른 판본과 비교한 논문은 祝世峰의 「『金匱玉函經』과 唐本『傷寒論』比較研究⁸⁾」, 嚴賢燮의 「『千金翼方』傷寒과 『傷寒論』의 比較研究⁹⁾」, 衛雲英의 「唐本與宋本『傷寒論』結構比較¹⁰⁾」 등이 있다. 『千金翼方·傷寒』을 중심 주제로 삼은 논문인 朴志英의 「『천금익방·상한』에 대한 연구」에서는 『千金翼方·傷寒』의 특징으로 桂枝湯, 麻黃湯, 青

1) 黃飛, 外4人. 『傷寒論』主要板本簡略. 世界中西醫結合雜誌. 2014. 9(12). p.1267.
2)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前言p.1. “『唐本傷寒論』指唐初孫思邈(581-682)『千金翼方』卷九 卷十 收錄之『傷寒論』.”
3) 李順保. 『唐本傷寒論』考. 林霖. 傷寒論板本大全. 北京. 學苑出版社. 2000. p.296.
4) 衛雲英. 唐本與宋本『傷寒論』結構比較. 張智強. 醫古文智識. 上海中醫藥大學. 2001. 2001(4). p.30.
5)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前言p.11.

6) 김상현 外4人. 『金匱玉函經』의 成書배경과 학술체계.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6. 29(4). p.110.
7) 朴志英. 『千金翼方·傷寒』에 대한 研究. 大田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10. pp.1-109.
8) 祝世峰. 『金匱玉函經』과 唐本『傷寒論』比較研究. 北京中醫藥大學. 碩士學位論文. 2012. pp.1-61.
9) 嚴賢燮. 『千金翼方』傷寒과 『傷寒論』의 比較研究. 東義大學校 東義論集 第29輯. 自然科學篇. 1998. pp.189-253.
10) 衛雲英. 唐本與宋本『傷寒論』結構比較. 醫古文知識. 2001. 2001(4). pp.29-32.

龍湯 3方を 중시한 것과, “以法方類證, 方證同條, 比類相附”를 결론에서 언급하고 있으나, 본문에서 이러한 특징이 구체적으로 다뤄지지는 않았고, 『千金翼方·傷寒』 각 조문을 국역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唐本』을 다른 판본과 비교한 논문인 축세봉의 『『금궤옥함경』과 당본『상한론』 비교연구』에서는 『金匱玉函經』과 『唐本』을 조문별로 비교하였고, 비교한 결과 六朝시기 『傷寒論』은 “前論後方”형식이었으며, “辨瘧濕暘”篇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金匱玉函經』과 『唐本』의 汗, 吐, 下, 溫, 火, 灸, 刺, 水 8法이 『宋本』에서 汗, 吐, 下 3法으로 간략화된 것이라고 정리하였다. 엄현섭의 『『천금익방』상한과 『상한론』의 비교연구』에서는 『千金翼方·傷寒』조문과 趙開美가 復刻한 『宋本』조문을 붙여 비교하고 다른 내용이나 단어를 서로 괄호로 묶어 구분하여 두 판본의 차이점을 파악하였다. 위운영의 「당본여송본『상한론』 결구비교」에서는 두 판본이 모두 三陰三陽 조문을 앞에 두고 可與不可 조문을 뒤에 배열하였으나, 『唐本』은 「辨脈法」, 「平脈法」, 「傷寒例」가 없고, 「太陽篇」을 7法으로 분류하였으며, 『宋本』은 「太陽篇」을 上, 中, 下로 분류 했다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였다.

축의 「『금궤옥함경』과 당본『상한론』 비교연구」를 통해 六朝시기 『傷寒論』의 특징을 알 수 있고, 엄의 「『천금익방』상한과 『상한론』의 비교연구」, 위의 「당본여송본『상한론』 결구비교」를 통해 唐, 宋本の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연구 모두 『唐本』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논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唐本』의 특징을 밝히고, 다른 판본과 비교를 통해 판본들 간의 관계, 『傷寒論』 전승과정에서 『唐本』이 차지하는 위치와 의미를 알아보는데 중점을 두어 고찰하여 보았다.

『傷寒論注』는 명대 서사창이 소유하고 있던 것을 저본으로 삼은 반면 『唐本傷寒論校注』는 북송 교정의서국 유래의 것을 두 번 翻刻한 것을 저본으로 하고 있다. 전초진이 정리한 바에 따르면 『千金翼方』이 1066년 북송 교정의서국 교정사업에 포함된 이

후 1307년(元大德12년 丁未) 梅溪書院에서 번각한 것이 宋版의 첫 번째 번각판이고, 11) 일본 聿修堂에서 1829년에 다시 번각한 것이 宋版의 두 번째 번각판이다. 이 번각판은 오늘날 현존하는 『千金翼方』의 가장 우수한 판본으로 1955년 인민위생출판사에서 이 판본을 영인하였고, 12) 이 책을 저본으로 하여 전초진이 『唐本傷寒論校注』를 校注하였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 『唐本』 원문 텍스트로 『唐本傷寒論校注』 13)와 1955년 인민위생출판사 영인본 『千金翼方』 卷9와 卷10 14)을 사용했다. 『唐本』과 비교하기 위해 『玉函本』 텍스트로는 李順保가 校注한 『金匱玉函經』 15)을 사용했고, 『宋本』 텍스트로는 稻木一元·小曾戶洋·松田邦夫의 『翻刻宋版傷寒論』 16)을 사용하였다. 『脈經本』 텍스트로는 范登脈이 校注한 『脈經』 17)을 사용하였다. 이 논문에서 사용된 『千金翼方·傷寒』, 『唐本』 번호는 1955년 인민위생출판사 영인본 『千金翼方』 卷9 「太陽病用桂枝湯法第一」의 첫 번째 조문 “論曰 傷寒與瘧病濕病及熱暘相濫故叙而論之”를 1번으로 하고, 조문의 분리는 전초진이 『唐本傷寒論校注』에서 校注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 차례대로 번호를 붙인 것이다. 『宋本』의 조문번호는 통행본 『傷寒論』 조문번호를 기준으로 하였다. 판본들 간의 조문 배열 방식, 篇名, 避諱, 瘧·濕·暘 조문 위치 등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며 『唐本』의 특징을 밝히려 했다.

II. 本論

1. 『唐本』의 구조 형식의 특징

1) 編制

- 11) 김상현 外4人. 『金匱玉函經』의 成書배경과 학술체계. 대한한의학회지. 2016. 29(4). p.109.
- 12) 錢超塵. 『千金翼方』版本簡考. 中醫藥文化. 2012. 2012(3). pp.37-40.
- 13)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 14) 孫思邈著. 千金翼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5.
- 15) 李順保校注. 金匱玉函經. 北京. 學苑出版社. 2005.
- 16) 稻木一元, 小曾戶洋, 松田邦夫. 翻刻宋版傷寒論. 東京. 自然と科學社. 1991.
- 17) 王叔和著. 范登脈校注. 脈經.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10.

손사막은 『傷寒論』조문을 2卷 10篇으로 편집하였다. 2卷은 『千金翼方』 卷9와 卷10을 의미하며, 10篇은 三陰三陽 6篇과 「傷寒宜忌」, 「發汗吐下後病狀」, 「霍亂病狀」, 「陰易病已後勞復」 4篇이다. 손사막은 『傷寒論』조문을 우선 上, 下 두 부분으로 나누어 「傷寒上」을 卷9에 실고, 「傷寒下」를 卷10에 실었다. 卷9 「傷寒上」에는 三陽病을 太陽, 陽明, 少陽으로 나누어 3篇을 두었고, 卷10 「傷寒下」에는 三陰病을 太陰, 少陰, 厥陰으로 나눈 3篇과 「傷寒宜忌」, 「發汗吐下後病狀」, 「霍亂病狀」, 「陰易病已後勞復」 4篇을 합하여 모두 7篇을 두었다. 篇 아래 章을 살펴보면 卷9 「傷寒上」의 太陽篇은 桂枝湯, 麻黃湯, 靑龍湯, 柴胡湯, 承氣湯, 陷胸湯 6湯法과 雜療法까지 7法으로 나누었다. 卷10 「傷寒下」의 “傷寒宜忌” 아래에는 「忌發汗」, 「宜發汗」, 「忌吐」, 「宜吐」, 「忌下」, 「宜下」, 「宜溫」, 「忌火」, 「宜火」, 「忌灸」, 「宜灸」, 「忌刺」, 「宜刺」, 「忌水」, 「宜水」 15章을 두었다. 錢超塵이 校注한 『唐本』은 『千金翼方·傷寒』의 이러한 편제를 따랐으며, 1955년 인민위생출판사 영인본 원문에서 보이지 않던 “太陽病狀”을 목록에 추가 하였다. 1955년 인민위생출판사 영인본 『千金翼方·傷寒』에는 “太陽病狀”이 없이 「太陽病用桂枝湯法第一」로 시작하고, 錢超塵이 校注한 『唐本』목차에서는 “太陰病狀”篇名을 두고 그 아래 6湯法과 雜療法을 하위 목차로 삼고 있다.¹⁸⁾ Table 1. 에서 『千金翼方·傷寒』 목록의 번호는 卷-篇-章의 순서이다.

Table 1. The index of 『Qianjinyifang-Shanghan』 and 『Dangben Shanghanlun Jiaozhu』 and the contents provision number.

『千金翼方·傷寒』과 『唐本傷寒論校注』 목차, 해당 조문번호.

篇名분류	『千金翼方·傷寒』	『唐本傷寒論校注』	조문번호
	9. 傷寒上	傷寒上	

三陰三陽		一. 太陽病狀	
	9-1-1. 太陽病用桂枝湯法第一	(一) 太陽病用桂枝湯法	1-54
	9-1-2. 太陽病用麻黃湯法第二	(二) 太陽病用麻黃湯法	55-70
	9-1-3. 太陽病用靑龍湯法第三	(三) 太陽病用靑龍湯法	71-74
	9-1-4. 太陽病用柴胡湯法第四	(四) 太陽病用柴胡湯法	75-89
	9-1-5. 太陽病用承氣湯法第五	(五) 太陽病用承氣湯法	90-98
	9-1-6. 太陽病用陷胸湯法第六	(六) 太陽病用陷胸湯法	99-127
	9-1-7. 太陽病雜療法第七	(七) 太陽病雜療法第七	128-147
	9-2. 陽明病狀第八	二. 陽明病狀	148-226
	9-3. 少陽病狀第九	三. 少陽病狀	227-235
10. 傷寒下	傷寒下		
10-4. 太陰病狀第一	四. 太陰病狀	236-243	
10-5. 少陰病狀第二	五. 少陰病狀	244-288	
10-6. 厥陰病狀第三	六. 厥陰病狀	289-344	
傷寒宜忌	10-7. 傷寒宜忌第四(十五章)	七. 傷寒宜忌	
	10-7-1. 忌發汗第一	(一) 忌發汗	345-358
	10-7-2. 宜發汗第二	(二) 宜發汗	359-371
	10-7-3. 忌吐第三	(三) 忌吐	372-374
	10-7-4. 宜吐第四	(四) 宜吐	375-381
	10-7-5. 忌下第五	(五) 忌下	382-395
	10-7-6. 宜下第六	(六) 宜下	396-414
	10-7-7. 宜溫第七	(七) 宜溫	415-424
	10-7-8. 忌火第八	(八) 忌火	425-430
	10-7-9. 宜火第九	(九) 宜火	431
10-7-10. 忌灸第十	(十) 忌灸	432-434	

18)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目錄p.1.

	10-7-11.宜灸第十一	(十一)宜灸	435-440
	10-7-12.忌刺第十二	(十二)忌刺	441
	10-7-13.宜刺第十三	(十三)宜刺	442-450
	10-7-14.忌水第十四	(十四)忌水	451-453
	10-7-15.宜水第十五	(十五)宜水	454-456
發汗吐下後病狀	10-8.發汗吐下後病狀第五	八.發汗吐下後病狀	457-487
霍亂病狀	10-9.霍亂病狀第六	九.霍亂病狀	488-497
陰易病已後勞復	10-10.陰易病已後勞復第七	十.陰易病已後勞復	498-504

2) 方證同條, 比類相附

今以方證同條, 比類相附, 須有檢討, 倉卒易知.¹⁹⁾

위 표현은 『千金翼方』卷9 「傷寒上」 앞부분에 쓴 사막이 쓴 표현으로 “方證同條, 比類相附” 편집 형식은 이전에는 찾아 볼 수 없던 것이며, 『千金翼方·傷寒』의 편집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1) 方證同條

“方證同條”는 『傷寒論』에서 여러 형식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우선, 證과 方이 한 조문에 모두 있는 조문 구성을 方證同條라 한다.²⁰⁾ 그러나 『千金翼方·

傷寒』의 특징으로 꼽히는 “方證同條”는 “前論後方”과 관련지어 이해해야 한다. 그 근거로 손사막이 『千金翼方』卷9 「傷寒上」에서 직접 밝힌 글이 있다.

論曰: 傷寒熱病, 自古有之, 名賢濬哲, 多所防衛, 至於仲景, 特有神功. 尋思旨趣, 莫測其致, 所以醫人未能鑽仰. 嘗見太醫療傷寒惟大青, 知母等諸冷物投之, 極與仲景本意相反. 湯藥雖行, 百無一效, 傷其如此, 遂披傷寒大論, 鳩集要妙. 以為其方行之以來, 未有不驗. 舊方方證, 意義幽隱, 乃令近智所迷, 覽之者造次難悟, 中庸之士, 絕而不思, 故使閭里之中, 歲致夭枉之痛, 遠想令人慨然無已. 今以方證同條, 比類相附, 須有檢討, 倉卒易知.²¹⁾²²⁾

상한 열병이라는 것은 예로부터 있어, 어질고 심오하고 지혜롭다고 불리는 이들이 여러 번 방어하려했으나, 중경에 이르러서야 특별한 신묘함이 있었다. 그 뜻을 탐구하고 생각해도 그 경지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의인들이 우러르지 않을 수 없었다. 일찍이 태의가 상한을 치료하는데 오직 대청, 지모 등 모두 차가운 약을 집어넣는 것을 보았다. 지극히 중경의 본래 뜻과 상반되는 것이다. 탕약이 비록 쓰이나 모두 효과가 없고 상하게 함이 이리함에, 마침내 『傷寒大論』을 펼쳐 중요하고 절묘한 것을 모으니, 그 방이 쓰인 이래로 효험이 없는 적이 없었다. 옛날 法과 方과 證의 의미가 감추어져 나타나지 않으니 지혜에 가까이 가려는 자는 미혹하게 하고, 책을 보는 이는 짧은 사이에 이해하기 어렵게 하며, 평범한 선비는 생각하기를 멈추게 하여, 마을에서 일찍 죽거나 병에 걸리는 고통이 해마다 초래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한탄함이 끝이 없게 하는 것을 깊이 근심

2016. 43(11). p.2292.

21) 孫思邈著. 千金翼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5. p.97.

22)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1.

19) 孫思邈著. 千金翼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5. p.97.

20) 肖相如. 特異性方證-『傷寒論』方證中的精華. 遼寧中醫雜誌.

하였다. 오늘날 방증등조, 비류상부로서 모
 림지기 살펴보게 하니, 번뜩하는 사이에
 쉽게 알게 된다.

“今以方證同條”，“覽之者造次難悟”，“閭里之中，
 歲致夭枉之痛。” 이 구문으로부터 당시 『傷寒論』은
 “方”과 “證”이 분리 되어 있어, 책을 보는 이가 이
 해하기에 혼란스러웠고, 마을에 해마다 일찍 죽거나
 병에 걸리는 고통이 초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손사막이 부득이하게 “前論後方”형식의 『傷寒
 論』을 “方”과 “證”이 함께 오도록 “方證同條”배열로
 편집하여 책을 보는 이가 이해하기 쉽고, 임상에서
 활용하기 편리하게 했다.

“方證同條”가 “前論後方”의 발전적 형태라는 또
 다른 근거로 「金匱要略方論序」를 예로 들 수 있다.

翰林學士王洙在館閣日，於蠹簡中得仲景『
 金匱玉函要略方』三卷：上則辨傷寒，中則論
 雜病，下則載其方，并療婦人，乃錄而傳之
 士流，才數家耳。²³⁾

國家詔儒臣校正醫書，臣奇先校定『傷寒論』，
 次校定『金匱玉函經』，今又校成此書，仍以
 逐方次於證候之下，使會卒之際，便於檢用
 也。²⁴⁾

위 글을 살펴보면, 『金匱玉函要略方』의 경우는
 위에 傷寒조문을 두고, 中에서 雜病을 논하고, 下에
 그 方을 실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형식은 證과 方
 이 다른 篇으로 분리된 “前論後方”형태임을 말하고
 있다. 교정의서국에서 仲景의 書를 교정하면서 원래
 “前論後方”이었던 형식을 취하지 않고, 方을 證候
 아래에 옮겨 “方證同條”구조가 되게 했다. 북송 교
 정의서국에서도 醫書로 활용하기에 “前論後方”보다

는 “方證同條”가 더 적합하다고 여겼던 것 같다.

『千金翼方』卷9 「傷寒上」과 「金匱要略方論序」의
 내용을 바탕으로 손사막이 “方證同條”를 창안함으로
 써 『傷寒論』의 “方證同條”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
 다. 손사막이 보았던 『傷寒論』과 교정의서국 교정전
 의 『傷寒論』, 『金匱玉函經』, 『金匱玉函要略方』의 구
 성 형식은 모두 “前論後方”이었다. 손사막이 『千金
 翼方』에 『傷寒論』 조문을 배열하면서 證候바로 아래
 관련 方의 구성약물, 전탕법, 복용법을 함께 둔 “方
 證同條”방식이 시작됐고, 훗날 교정의서국이 『傷寒
 論』을 교정하면서 손사막이 창안한 “方證同條”방식
 을 적용하여 아래 예시와 같이 오늘날 『宋本』에서
 “方證同條”를 접할 수 있는 것이다.

傷寒，大下後，復發汗，心下痞，惡寒者，不
 可攻痞，當先解表，宜桂枝湯。

桂枝湯方

桂枝，芍藥，生薑 各貳兩切，甘草 貳兩炙，
 大棗 拾貳枚擘，

上伍味，咬咀，參味以水柒升，微火煮取參
 升，去滓，溫服壹升，須更飲熱粥壹升餘以
 助藥力，溫覆令汗出壹時許益善，若不汗再
 服如前，復不汗後服小促，其間令半日許參
 服。病重者，壹日壹夜乃差，當晬時觀之，
 服壹劑湯病證猶在，當復作服之，至有不汗
 出，當服參劑乃解。²⁵⁾

오늘날에는 『宋本』이 위의 예시와 같이 “方”과
 “證”이 함께 있어서 “方證同條” 방식이 당연하게 생
 각될 수 있지만, 이전 『傷寒論』에서는 “方”과 “證”
 이 서로 분리되어 있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2) 比類相附

“比類相附”라는 표현은 『千金翼方』卷9 「傷寒上」
 뿐만 아니라 다시 『千金翼方』卷30 뒤쪽 「千金翼
 方·後序」에 등장한다.

25) 孫思邈著. 千金翼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5. p.98.

23) 張仲景著. 湯一新, 熊維美注. 金匱要略方論釋注. 傅景華.
 金匱要略方論釋注·小兒藥證直訣釋注. 北京, 中國人民大學
 出版社. 2010. p.9.

24) 張仲景著. 湯一新, 熊維美注. 金匱要略方論釋注. 傅景華.
 金匱要略方論釋注·小兒藥證直訣釋注. 北京, 中國人民大學
 出版社. 2010. p.9.

乃專取仲景之論，以太陽方證，比類相附，三陰三陽，宜忌，霍亂，發汗吐下後，陰易勞復病，爲十六篇，分上下兩卷，亦一時之新意.²⁶⁾²⁷⁾

위 문장의 “太陽方證，比類相附”는 太陽篇을 桂枝湯，麻黃湯，靑龍湯，柴胡湯，承氣湯，陷胸湯 6湯法으로 나누고 方證이 같은 類의 조문을 서로 붙여 분리되지 않게 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조문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太陽病，外證未解，其脈浮弱，當以汗解，宜桂枝湯. 『宋本』42²⁸⁾

傷寒大下後，復發汗，心下痞，惡寒者，不可攻痞，先解表，先解表，表解乃可攻痞，解表宜桂枝湯，攻痞宜大黃黃連瀉心湯. 『宋本』164²⁹⁾

첫 번째 조문은 『金匱玉函經』 卷二 「辨太陽病形證治上」과³⁰⁾ 『宋本』 卷二 「辨太陽病脈證并治上」에 배열되어 있으나, 두 번째 조문은 『金匱玉函經』 卷三 「辨太陽病形證治下」와³¹⁾ 『宋本』 卷四 「辨太陽病脈證并治下」에 배열되어 있다. 두 조문이 모두 桂枝湯 관련 조문이지만, 『金匱玉函經』과 『宋本』에서는 서로 다른 卷, 다른 篇에 놓여 있다. 이와는 다르게 『千金翼方』에서는 위의 두 조문이 모두 卷9 「太陽病用桂枝湯法」에 함께 배열되어 있다. 이렇게 같은 類의 조문을 함께 둔 것은 손사막이 “比類相附”를 염두하고 조문을 배열한 『千金翼方·傷寒』만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太陽篇의 桂枝湯，麻黃湯，靑龍湯，柴胡湯，承氣湯，陷胸湯 6湯法 중에 靑龍湯，陷胸湯은 『宋本』과 『玉涵本』에서도 같은 篇에 배열되어 있다. 桂枝湯，柴胡湯，承氣湯은 『宋本』과 『玉涵本』에는 관련 조문들이 흩어져 있지만 『唐本』은 “比類相附” 해놓음이 뚜렷하다. 麻黃湯은 다른 篇에 있던 1조문을 옮겨다 함께 두었다. 아래 Table 2, 3, 4는 이러한 조문들을 보여주고 있다. 『千金翼方·傷寒』 卷9 「太陽病用桂枝湯法」에 있는 번호는 『千金翼方·傷寒』에 부여한 번호이고, 『宋本』의 上, 中, 下는 「辨太陽病脈證并治上」, 「辨太陽病脈證并治中」, 「辨太陽病脈證并治下」를 의미한다. 『玉涵本』의 上, 下는 「辨太陽病形證治上」, 「辨太陽病形證治下」를 뜻한다.

Table 2는 『千金翼方·傷寒』 卷9 「太陽病用桂枝湯法」에 “比類相附”되어있는 桂枝湯 관련 조문이 『宋本』, 『玉涵本』에서 다른 卷, 다른 篇에 분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宋本』에서는 桂枝湯 조문이 「辨太陽病脈證并治上」, 「辨太陽病脈證并治中」, 「辨太陽病脈證并治下」에 흩어져 분포하고, 『玉涵本』에서도 「辨太陽病形證治上」, 「辨太陽病形證治下」에 분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2. The “bileixiangfu” provision in 「TaiYang disease use Guizhitangfa」 chapter of 「Qianjinyifang·shanghan」 version of the 「Shanghanlun」 and the dispersion of the provision in 「Songben」 and 「Yuhanben」 version of the 「Shanghanlun」.

『千金翼方·傷寒』 卷9 「太陽病用桂枝湯法」에 “比類相附” 되어있는 조문과 『宋本』, 『玉涵本』에서의 분포.

『千金翼方·傷寒』 卷9 「太陽病用桂枝湯法」	『宋本』	『玉涵本』
26. 太陽中風，陽浮而陰濡弱，浮者熱自發，濡弱者，汗自出，漉漉惡寒，漸漸惡風，翁翁發熱，鼻鳴乾嘔者，桂枝湯主之. ³²⁾	上012. 卷二，十三 ³³⁾	卷2(上), 27항 ³⁴⁾
27. 太陽病，發熱，汗出，此爲榮弱衛強，故	中095 卷三，六 ³⁶⁾	卷2(上), 27항 ³⁷⁾

26) 孫思邈著. 千金翼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5. p.362.
27) 錢超塵이 校注한 『唐本傷寒論校注』에 따르면 『千金翼方·後序』에 있는 이 문장은 林億이 쓴 것이다.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前言p.2. 를 참고하면 알 수 있다.
28) 稻木一元. 小曾戶洋. 松田邦夫. 翻刻宋版傷寒論. 東京. 自然と科學社. 1991. p.100.
29) 稻木一元. 小曾戶洋. 松田邦夫. 翻刻宋版傷寒論. 東京. 自然と科學社. 1991. p.188.
30) 李順保校注. 金匱玉函經.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24.
31) 李順保校注. 金匱玉函經.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40.

使汗出，以救邪風，桂枝湯主之。 ³⁵⁾		
37. 太陽病，外證未解，其脈浮弱，當以汗解，宜桂枝湯。 ³⁸⁾	中042 卷三，二 ³⁹⁾	卷2(上)，29항， 卷5，60항 ⁴⁰⁾⁴¹⁾
38. 太陽病，下之微喘者，表未解故也，宜桂枝湯。 ⁴²⁾	中043 卷三，二 ⁴³⁾	卷2(上)，29항， 卷5，60항 ⁴⁴⁾
39. 太陽病，有外證未解，不可下之，下之爲逆，解外宜桂枝湯。 ⁴⁵⁾	中044 卷三，二 ⁴⁶⁾	卷2(上)，30항 ⁴⁷⁾
40. 太陽病，先發汗不解而下之，其脈浮，不愈。浮爲在外，而反下之，故令不愈。今脈浮，故在外，當解其外則愈，宜桂枝湯。 ⁴⁸⁾	中045 卷三，二 ⁴⁹⁾	卷2(上) 30항 ⁵⁰⁾
41. 病常自汗出，此爲營氣和，衛氣不解故也。營行脈中，衛行脈外，復發其汗，衛和則愈，宜桂枝湯。 ⁵¹⁾	中053 卷三，三 ⁵²⁾	卷2(上) 30항 ⁵³⁾
42. 病人臟無他病，時發熱，自汗出而不愈，此衛氣不和也。先其時發汗愈。宜桂枝湯。 ⁵⁴⁾	中054 卷三，三 ⁵⁵⁾	卷2(上) 30항 ⁵⁶⁾
43. 傷寒，不大便六七日，頭痛有熱，與承氣湯。其大便反青，此爲不在裏，故在表也，當發其汗。頭痛者必衄。宜桂枝湯。 ⁵⁷⁾	中056 卷三，三 ⁵⁸⁾	卷2(上) 31항 ⁵⁹⁾
44. 傷寒，發汗已解，半日許復煩，其脈浮數，可復發其汗，宜服桂枝湯。 ⁶⁰⁾	中057 卷三，三 ⁶¹⁾	卷2(上) 31항 ⁶²⁾
45. 傷寒，醫下之後，身體疼痛，清便自調，急當救表，宜桂枝湯。 ⁶³⁾	中091 卷三，六 ⁶⁴⁾	卷2(上) 33항 ⁶⁵⁾
46. 太陽病未解，其脈陰陽俱停，必先振汗出而解，但陽微者，先汗之而解，宜桂枝湯。 ⁶⁶⁾	中094 卷三，六 ⁶⁷⁾	卷2(上) 33항 ⁶⁸⁾
47. 太陽病未解，熱結膀胱，其人如狂，其血必自下，下者即愈。其外未解，尚未可攻，當	中106 卷三，七 ⁷⁰⁾	卷2(上) 34항 ⁷¹⁾

先解其外，宜桂枝湯。 ⁶⁹⁾		
48. 傷寒，大下後，復發汗，心下痞，惡寒者，不可攻痞，當先解表，宜桂枝湯。 ⁷²⁾	下164 卷四，十 六 ⁷³⁾	卷3(下) 40항 ⁷⁴⁾

- 32)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18.
- 33) 稻木一元. 小曾戶洋. 松田邦夫. 翻刻宋版傷寒論. 東京. 自然と科學社. 1991. p.82.
- 34) 李順保校注. 金匱玉函經.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21.
- 35)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19.
- 36) 稻木一元. 小曾戶洋. 松田邦夫. 翻刻宋版傷寒論. 東京. 自然と科學社. 1991. p.107.
- 37) 李順保校注. 金匱玉函經.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21.
- 38)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24.
- 39) 稻木一元. 小曾戶洋. 松田邦夫. 翻刻宋版傷寒論. 東京. 自然と科學社. 1991. p.100.
- 40) 李順保校注. 金匱玉函經.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24.
- 41) 李順保校注. 金匱玉函經.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71.
- 42)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24.
- 43) 稻木一元. 小曾戶洋. 松田邦夫. 翻刻宋版傷寒論. 東京. 自然と科學社. 1991. p.100.
- 44) 李順保校注. 金匱玉函經.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25.
- 45)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25.
- 46) 稻木一元. 小曾戶洋. 松田邦夫. 翻刻宋版傷寒論. 東京. 自然と科學社. 1991. p.100.
- 47) 李順保校注. 金匱玉函經.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25.
- 48)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25.
- 49) 稻木一元. 小曾戶洋. 松田邦夫. 翻刻宋版傷寒論. 東京. 自然と科學社. 1991. p.100.
- 50) 李順保校注. 金匱玉函經.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25.
- 51)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26.
- 52) 稻木一元. 小曾戶洋. 松田邦夫. 翻刻宋版傷寒論. 東京. 自然と科學社. 1991. p.101.
- 53) 李順保校注. 金匱玉函經.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26.
- 54)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27.
- 55) 稻木一元. 小曾戶洋. 松田邦夫. 翻刻宋版傷寒論. 東京. 自然と科學社. 1991. p.101.
- 56) 李順保校注. 金匱玉函經.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26.
- 57)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28.
- 58) 稻木一元. 小曾戶洋. 松田邦夫. 翻刻宋版傷寒論. 東京. 自然と科學社. 1991. p.102.
- 59) 李順保校注. 金匱玉函經.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26.

『千金翼方·傷寒』 卷9 「太陽病用麻黃湯法」에 “比類相附”되어있는 麻黃湯 관련 조문은 “65. 脈浮而緊, 浮則爲風, 緊則爲寒, 風則傷衛, 寒則傷榮, 榮衛俱病, 骨節煩疼, 可發其汗, 宜麻黃湯.”⁷⁵⁾ 조문의 경우만 『宋本』의 「卷一辨脈法」⁷⁶⁾와 『玉涵本』의 卷二 「辨脈第二」에 있고, 나머지 麻黃湯 조문은 모두 『宋本』의 「辨太陽病脈證并治中」과, 『玉涵本』의 卷二 「辨太陽病形證治上」에 있다.

『千金翼方·傷寒』 卷9 「太陽病用柴胡湯法」에 “比類相附”되어있는 柴胡湯 관련 조문은 『宋本』에서는 柴胡湯 조문이 「辨太陽病脈證并治中」, 「辨太陽病脈證并治下」, 「辨陽明病脈證并治」에 흩어져 분포하고, 『玉涵本』에서도 「辨太陽病形證治上」, 「辨太陽病形證

治下」에 분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84. 發汗多, 亡陽狂語者, 不可下, 以爲可與柴胡桂枝湯, 和其營衛, 以通津液後自愈.” 조문의 경우, 『宋本』의 卷八 「辨發汗後病脈證并治」에 있는 조문이고, 『玉涵本』의 卷六 「辨發汗吐下後病形證治」에 있는 조문이다.

Table 3. The “bileixiangfu” provision in 「TaiYang disease use Chaihutangfa」 chapter of 「Qianjinyifang-shanghan」 and the dispersion of the provision in 「Songben」 and 「Yuhanben」.

『千金翼方·傷寒』 卷9 「太陽病用柴胡湯法」에 “比類相附” 되어있는 조문과 『宋本』, 『玉涵本』에서의 분포.

- 60)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29.
- 61) 稻木一元. 小曾戶洋. 松田邦夫. 翻刻宋版傷寒論. 東京. 自然と科學社. 1991. p.102.
- 62) 李順保校注. 金匱玉函經.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26.
- 63)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30.
- 64) 稻木一元. 小曾戶洋. 松田邦夫. 翻刻宋版傷寒論. 東京. 自然と科學社. 1991. p.107.
- 65) 李順保校注. 金匱玉函經.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29.
- 66)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31.
- 67) 稻木一元. 小曾戶洋. 松田邦夫. 翻刻宋版傷寒論. 東京. 自然と科學社. 1991. p.107. 『宋本』에는 “太陽病未解, 脈陰陽俱停, 陰脈微者, 下之解, 宜調胃承氣湯.”으로 되어 있다.
- 68) 李順保校注. 金匱玉函經.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30.
- 69)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32.
- 70) 稻木一元. 小曾戶洋. 松田邦夫. 翻刻宋版傷寒論. 東京. 自然と科學社. 1991. p.110. 『宋本』에는 “太陽病不解, 熱結膀胱, 其人如狂, 宜桃核承氣湯.”으로 되어 있다.
- 71) 李順保校注. 金匱玉函經.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31.
- 72)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34.
- 73) 稻木一元. 小曾戶洋. 松田邦夫. 翻刻宋版傷寒論. 東京. 自然と科學社. 1991. p.188. 『宋本』에는 “傷寒大下後, 復發汗, 心下痞, 惡寒者, 表未解也不. 不可攻痞, 當先解表, 表解乃可攻痞, 解表宜桂枝湯. 攻痞宜大黃瀉心湯.”으로 되어 있다.
- 74) 李順保校注. 金匱玉函經.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40.
- 75)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51.
- 76) 稻木一元. 小曾戶洋. 松田邦夫. 翻刻宋版傷寒論. 東京. 自然と科學社. 1991. p.34.

『千金翼方·傷寒』 卷9 「太陽病用柴胡湯法」	『宋本』	『玉涵本』
75. 血弱氣盡, 腠理開, 邪氣因入, 與正氣相搏, 在於脇下, 正邪分爭, 往來寒熱, 休作有時, 嘿嘿不欲食飲, 臟腑相連, 其痛必下, 邪高痛下, 故使其嘔, 小柴胡湯主之. 服柴胡而渴者, 此爲屬陽明, 以法治之. ⁷⁷⁾	中097 卷三, 六 ⁷⁸⁾	卷2(上), 33頁 ⁷⁹⁾
80. 傷寒五六日, 頭汗出, 微惡寒, 手足冷, 心下滿, 口不欲食, 大便堅, 其脈細, 此爲陽微結, 必有表, 復有裏, 沈則爲病在裏, 汗出亦爲陽微. 假令純陰結, 不得有外證, 悉入在裏, 此爲半在外, 半在裏. 脈雖沈緊, 不得爲少陰. 所以然者, 陰不得有汗. 今頭大汗出, 故知非少陰也, 可與小柴胡湯. 設不了了者, 得屎而解. ⁸⁰⁾	下148 卷四, 二 ⁸¹⁾	卷3(下), 39頁 ⁸²⁾
83. 傷寒六七日, 發熱, 微惡寒, 肢節煩疼, 微嘔, 心下支結, 外證未去者, 宜柴胡桂枝湯. ⁸³⁾	下146 卷四, 二 ⁸⁴⁾	卷3(下), 38頁 ⁸⁵⁾
84. 發汗多, 亡陽狂語者, 不可下, 以爲可與柴胡桂枝湯, 和其營衛, 以	辨發汗後 112 卷八, 十	卷6, 辨發汗吐下後病 ⁸⁸⁾

通津液後自愈. ⁸⁶⁾	三87)	
85. 傷寒五六日, 其人已發汗, 而復下之, 胸脇滿, 微結, 小便不利, 渴而不嘔, 但頭汗出, 往來寒熱而煩, 此爲未解, 柴胡桂枝乾薑湯主之. ⁸⁹⁾	下147 卷四, 二90)	卷3(下), 39頁91)
87. 傷寒十餘日, 邪氣結在裏, 欲復往來寒熱, 當與大柴胡湯. ⁹²⁾	下136 卷四, 一93)	卷3(下), 37頁94)
88. 傷寒發熱, 汗出不解, 心中痞堅, 嘔吐下利者, 大柴胡湯主之. ⁹⁵⁾	下165 卷四, 四96)	卷3(下), 40頁97)
89. 病人表裏無證, 發熱七八日, 雖脈浮數, 可下之, 宜大柴胡湯. ⁹⁸⁾	陽明257 卷五, 五99)	卷3(下), 47頁100)

- 77)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63.
 78) 稻木一元. 小曾戶洋. 松田邦夫. 翻刻宋版傷寒論. 東京. 自然と科學社. 1991. p.108.
 79) 李順保校注. 金匱玉函經.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30.
 80)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67.
 81) 稻木一元. 小曾戶洋. 松田邦夫. 翻刻宋版傷寒論. 東京. 自然と科學社. 1991. p.160.
 82) 李順保校注. 金匱玉函經.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38.
 83)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72.
 84) 稻木一元. 小曾戶洋. 松田邦夫. 翻刻宋版傷寒論. 東京. 自然と科學社. 1991. p.160.
 85) 李順保校注. 金匱玉函經.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37.
 86)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72.
 87) 稻木一元. 小曾戶洋. 松田邦夫. 翻刻宋版傷寒論. 東京. 自然と科學社. 1991. p.363.
 88) 李順保校注. 金匱玉函經.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92.
 89)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73.
 90) 稻木一元. 小曾戶洋. 松田邦夫. 翻刻宋版傷寒論. 東京. 自然と科學社. 1991. p.160.
 91) 李順保校注. 金匱玉函經.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38.
 92)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75.
 93) 稻木一元. 小曾戶洋. 松田邦夫. 翻刻宋版傷寒論. 東京. 自然と科學社. 1991. p.158.
 94) 李順保校注. 金匱玉函經.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36.
 95)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76.
 96) 稻木一元. 小曾戶洋. 松田邦夫. 翻刻宋版傷寒論. 東京. 自

『千金翼方·傷寒』卷9 「太陽病用承氣湯法」에 “比類相附”되어있는 承氣湯 관련 조문은 『宋本』에서는 承氣湯 조문이 「辨太陽病脈證并治中」, 「辨陽明病脈證并治」에 흠어져 분포하고, 『玉函本』에서도 「辨太陽病形證治上」, 「辨太陽病形證治下」에 분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4. The “bileixiangfu” provision in 『TaiYang disease use Chengqitangfa』 chapter of 『Qianjinyifang-shanghan』 and the dispersion of the provision in 『Songben』 and 『Yuhanben』.

『千金翼方·傷寒』卷9 「太陽病用承氣湯法」에 “比類相附” 되어있는 조문과 『宋本』, 『玉函本』에서의 분포.

『千金翼方·傷寒』卷9 「太陽病用承氣湯法」	『宋本』	『玉函本』
93. 太陽病, 過經十餘日, 心下溫溫欲吐, 而胸中痛, 大便反滯, 其腹微滿, 鬱鬱微煩, 先時自極吐下者, 宜承氣湯. ¹⁰¹⁾	中123 卷三, 八102)	卷2(上), 36頁103)
94. 二陽并病, 太陽證罷, 但發潮熱, 手足漿漿汗出, 大便難, 譫語者, 下之愈, 宜承氣湯. ¹⁰⁴⁾	陽明220 卷五, 二105)	卷3(下), 45頁106)
95. 太陽病三日, 發其汗不解, 蒸蒸發熱者, 調胃承氣湯主之. ¹⁰⁷⁾	陽明248 卷五, 十 八108)	卷3(下), 47頁109)
96. 傷寒吐後, 腹滿者, 承氣湯主之. ¹¹⁰⁾	陽明249 卷五, 十 八111)	卷3(下), 47頁112)
97. 太陽病, 吐下發汗後, 微煩, 小便數, 大便因堅, 可與小承氣湯, 和之則愈. ¹¹³⁾	陽明250 卷五, 十八- 十九114)	卷3(下), 47頁115)

- 然と科學社. 1991. p.163.
 97) 李順保校注. 金匱玉函經.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40.
 98)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76.
 99) 稻木一元. 小曾戶洋. 松田邦夫. 翻刻宋版傷寒論. 東京. 自然と科學社. 1991. p.208.
 100) 李順保校注. 金匱玉函經.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51.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다른 판본에서는 같은 類의 方조문들이 흩어져 있으나 孫思邈은 “比類相附” 함으로써 한 번에 모아 볼 수 있게 하였다. 책을 보는 이들이 方조문을 찾아보는데 번잡함이 훨씬 줄어들어 임상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3) 瘧·濕·喝, 避諱, 篇名(六經篇, 宜忌)

『千金翼方·傷寒』은 2卷 10篇으로 편집된 것과 “方證同條, 比類相附” 이외에도 瘧·濕·喝조문의 위치, 三陰三陽篇과 宜忌篇의 篇名이 다른 판본들과 다르고, 隋文帝 楊堅의 “堅”字를 피하지 않은 것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특징들도 서로 다른 판본들과 비교함으로써 더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金匱玉函經』(이하 『玉函本』), 『宋本』, 『脈經本』을 함께 언급하여 논하였다.

(1) 瘧·濕·喝 조문

瘧·濕·喝 조문은 『千金翼方·傷寒』에서 「太陽病用桂枝湯法」의 조문1부터 조문16까지에 해당된다. 조문1부터 6까지 瘧狀, 조문7부터 13까지 濕狀, 조문

14부터 16까지 喝狀 조문이다. 조문1의 17字와 “上件瘧狀”, “上件濕狀”, “上件喝狀”의 12字, 총 29字는 손사막이 쓴 것으로 보인다.¹¹⁶⁾

傷寒與瘧病, 濕病及熱喝相濫, 故叙而論之.
『唐本』1 117)

病者身熱足寒, 頸項強, 惡寒, 時頭熱面赤, 目脈赤, 獨頭動搖, 是爲瘧. 上件瘧狀. 『唐本』6 118)

病人喘, 頭痛鼻塞而煩, 其脈大, 自能飲食, 腹中獨和無病, 病在頭, 中寒濕, 故鼻塞, 納藥鼻中即愈. 上件濕狀. 『唐本』13 119)

太陽中喝, 發熱惡寒, 身重而疼痛, 其脈弦細紮遲, 小便已, 洗然手足逆冷, 小有勞熱, 口前開, 板齒燥, 若發其汗, 惡寒則甚, 加溫針, 發熱益甚, 數下之, 淋復甚. 上件喝狀. 『唐本』16 120)

위 조문에서와 같이 瘧狀, 濕狀, 喝狀의 마지막 조문에 각각 “上件瘧狀”, “上件濕狀”, “上件喝狀” 4字씩을 더함으로써 각 조문의 歸屬이 명확해지는 장점이 있다. 전초진 또한 이 4字가 『宋本』에는 없으나, 있는 것이 낫다고 하였다.¹²¹⁾

Table 5. The provisions number of Chi·Shi·Ye in 『Dang ben』.

『唐本』의 瘧·濕·喝 조문 번호.

	『唐本』 조문 번호
瘧狀	2,3,4,5,6

- 101)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79.
- 102) 稻木一元. 小曾戶洋. 松田邦夫. 翻刻宋版傷寒論. 東京. 自然と科學社. 1991. p.111.
- 103) 李順保校注. 金匱玉函經.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34.
- 104)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80.
- 105) 稻木一元. 小曾戶洋. 松田邦夫. 翻刻宋版傷寒論. 東京. 自然と科學社. 1991. p.202.
- 106) 李順保校注. 金匱玉函經.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47.
- 107)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81.
- 108) 稻木一元. 小曾戶洋. 松田邦夫. 翻刻宋版傷寒論. 東京. 自然と科學社. 1991. p.234.
- 109) 李順保校注. 金匱玉函經.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50.
- 110)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81.
- 111) 稻木一元. 小曾戶洋. 松田邦夫. 翻刻宋版傷寒論. 東京. 自然と科學社. 1991. p.234.
- 112) 李順保校注. 金匱玉函經.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50.
- 113)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82.
- 114) 稻木一元. 小曾戶洋. 松田邦夫. 翻刻宋版傷寒論. 東京. 自然と科學社. 1991. pp.234-235.
- 115) 李順保校注. 金匱玉函經.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50.

- 116)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p.4-14.
- 117)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4.
- 118)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5.
- 119)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12.
- 120)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14.
- 121)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p.4-14.

濕狀	7,8,9,10,11,12,13
喝狀	14,15,16

瘧·濕·喝 조문은 독립된 篇으로 편제되었는지 여부와 그 위치가 판본마다 相異하다. 『千金翼方·傷寒』에서는 瘧·濕·喝 조문을 「太陽病用桂枝湯法」에 포함하여 1조문-16조문에 배열 하고, 瘧狀, 濕狀, 喝狀의 마지막 조문에 각각 4字를 더하였다. 『宋本』은 卷2에 「辨瘧濕喝脈證第四」篇이 독립되어 있으나 그 위치가 『千金翼方·傷寒』과 같이 「辨太陽病脈證并治第五」篇 앞에 두었다. 『玉函本』은 卷2에 「辨瘧濕喝第一」篇을 독립하여 두었으나, 『千金翼方·傷寒』, 『宋本』처럼 太陽病 조문 앞에 두지는 않았다. 『千金翼方·傷寒』의 이러한 편제는 손사막이 『傷寒論』을 읽는 자로 하여금 瘧·濕·喝과 太陽病의 鑑別에 注意시키려 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¹²²⁾ 야마다게이지의 『중국의학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서도 이 부분을 언급하였다. 瘧·濕·喝은 원래 잡병에 속하는 병(『金匱要略』의 한 장)으로, 『千金翼方·傷寒』에서는 ‘傷寒’과 구별하기 위해 太陽病 앞부분에 예시하였고, 『宋本』도 그것을 답습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¹²³⁾

Table 6. The provisions type of Chi-Shi-Ye in 『Qianjinyifang-Shanghan』, 『Songben』 and 『Yuhanben』.

『千金翼方·傷寒』, 『宋本』, 『玉函本』에서 瘧·濕·喝 조문 형태.

傳本	「瘧濕喝」 조문
『千金翼方·傷寒』	9-1. 「太陽病用桂枝湯法」안에 포함
『宋本』	2-4. 「辨瘧濕喝脈證第四」, 독립된 篇으로 존재
『玉函本』	2-2. 「辨瘧濕喝第一」, 독립된 篇으로 존재

122)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8.

123) 야마다게이지. 중국 의학은 어떻게 시작 되었는가. 박상준. (주)사이언스북스. 2002. pp.188-189.

(2) 避諱

避諱는 과거 漢字문화권에서 임금이나 尊者의 이름을 직접 부르거나 쓰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古文書의 眞僞, 성립 시기 등을 판별하는데 避諱가 이용될 수 있다.¹²⁴⁾ 이러한 避諱가 『傷寒論』에서도 관찰된다. 『傷寒論』에서 예를 찾아보면 避諱하기 위해 病證名을 바꾼 경우와, 方名을 고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病證名이 바뀐 경우는 아래 예시와 같이 王叔和 『脈經』과 『千金翼方·傷寒』에서 나타나는 “堅”이 『宋本』에서는 太陽病篇中の “大便鞭”처럼 “鞭”으로 대체된 것이다. 이는 隋文帝 楊堅의 이름에 쓰인 “堅”字를 避하여 “鞭”을 대신 사용한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 지배적이다.¹²⁵⁾

太陽病, 吐下發汗後微煩, 小便數, 大便因堅, 可與小承氣湯和之則愈.¹²⁶⁾

太陽病, 吐下發汗後微煩, 小便數, 大便因堅, 可與小承氣湯和之則愈. 『唐本』97¹²⁷⁾

太陽病, 若吐, 若下, 若發汗後, 微煩, 小便數, 大便因鞭者, 與小承氣湯, 和之愈. 『宋本』250¹²⁸⁾

避諱를 하면서 方名이 바뀐 예는 『千金翼方·傷寒』의 玄武湯이 『宋本』의 眞武湯으로 바뀐 것을 들 수 있다.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조문의 方名이 1955년 인민위생출판사 영인본 『千金翼方·傷寒』에는 玄武湯이라고 되어 있으나, 『宋本』에는 宋의 始祖인 趙玄朗의 諱를 避하기 위해 眞武湯으로 되어있다.¹²⁹⁾

少陰病, 二三日不已, 至四五日, 腹痛小便

124) 윤창열. 避諱의 유래와 종류, 방법에 관한 고찰.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9. 22(2). pp.127-128.

125) 蔡鐵如. 中醫古籍中的避諱及其在文獻研究中的作用探討. 南京中醫藥大學學報. 2017. 9(18). p.162.

126) 王叔和著. 范登脈校注. 脈經.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10. p.160. 『唐本』의 97조문에 해당됨.

127) 孫思邈著. 千金翼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5. p.102.

128) 稻木一元. 小曾戶洋. 松田邦夫. 翻刻宋版傷寒論. 東京. 自然と科學社. 1991. pp.234-235.

129) 蔡鐵如. 中醫古籍中的避諱及其在文獻研究中的作用探討. 南京中醫藥大學學報. 2017. 9(18). p.162.

不利, 四肢沈重疼痛而利, 此爲有水氣, 其人或欬或小便不利或下利或嘔, 玄武湯主之. 『唐本』279 130)

少陰病, 二三日不已, 至四五日, 腹痛, 小便不利, 四肢沈重疼痛, 自下利者, 此爲有水氣, 其人或欬, 或小便利, 或下利, 或嘔者, 眞武湯主之. 『宋本』316 131)

위의 두 예를 보면 『千金翼方·傷寒』은 隋文帝 楊堅의 이름에 쓰인 “堅”字와 宋의 始祖인 趙玄朗의 諱를 모두 피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千金翼方·傷寒』의 저본이 隋文帝 이전의 판본이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 祝 역시 연구에서 『千金翼方·傷寒』의 저본 유래가 隋의 수정을 거치지 않은 六朝시기까지도 거슬러 올라 갈 수 있다고 하였다.¹³²⁾ 『千金翼方·傷寒』에서 확인할 수 있는 避諱와 관련된 “堅”字는 『千金翼方·傷寒』의 특징인 동시에 저본이 상당히 이른 시기의 것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¹³³⁾

130) 孫思邈著. 千金翼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5. pp.112-113.

131) 稻木一元. 小曾戶洋. 松田邦夫. 翻刻宋版傷寒論. 東京. 自然と科學社. 1991. pp.262-263.

132) 祝世峰. 『金匱玉函經』與唐本『傷寒論』比較研究. 北京中醫藥大學. 碩士學位論文. p.11.

133) 『千金翼方·傷寒』의 “堅”字에 대해서 염용하(염용하 외3人. 『金匱玉函經』에 관한 문헌적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2. 16(1). p11. 주석 78)는 『傷寒論』이 “堅”자를 피휘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은 『千金翼方』이나 『玉函本』이 隋代 이전에 편집되었다는 것의 증거로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宋本』의 早期傳本이 隋代에 1차적으로 정리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였다. 蔡철여의 피휘를 이용하여 고서 및 의가의 연대를 추정하는 연구(蔡鐵如. 中醫古籍中的避諱及其在文獻研究中的作用探討. 南京中醫藥大學學報. 2017. 9(18). p.163.)에서는 楊上善의 『太素』에서 나타나는 “泉, 洩” 글자가 唐 황제 李淵, 李世民的 이름을 피휘한 것이고, 隋文帝 楊堅과 隋煬帝 楊廣의 “堅”과 “廣”은 모두 피휘하지 않아 『太素』의 성서 시기를 唐代로 보았다. 그러나 錢超塵. 『千金翼方』載錄의 “辨傷寒”考(下). 世界中西醫結合雜誌. 2014. 9(5). p.452.)은 『隋本』은 “堅”字를 “鞭”이나 “固”로 고쳤으나, 『唐本』의 “堅”字는 隋文帝 楊堅의 이름을 피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만약 『唐本』이 『太素』처럼 唐代에 성서된 판본을 저본으로 삼았다면, 唐 황제 이름을 피휘한 글자가 나타날 수 있으나, 그러한 글자는 나타나지 않는다. 祝世峰(祝世峰. 『金匱玉函經』與唐本『傷寒論』比較研究. 北京

(3) 篇名(六經篇, 宜忌)

『千金翼方·傷寒』은 『玉函本』, 『宋本』과 기본적인 내용은 동일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三陰三陽의 篇名에 있어서 『千金翼方·傷寒』은 三陰三陽 편명 형식이 다른 판본과 달리 2가지 형태이다. 예를 들어 『玉函本』은 三陰三陽 편명 형식이 「辨…病形證治」이고, 『宋本』은 「辨…病脈證并治」로 한 가지이다. 반면에 『千金翼方·傷寒』은 편명 형식이 「太陽病用……湯法」과 「…病狀」으로 되어 있다. 「陽明病狀」, 「少明病狀」, 「太陰病狀」, 「少陰病狀」, 「闕陰病狀」처럼 太陽病을 제외한 二陽三陰은 「…病狀」으로 편명이 되어 있으나, 太陽病은 「太陽病用桂枝湯法」, 「太陽病用麻黃湯法」, 「太陽病用靑龍湯法」, 「太陽病用柴胡湯法」, 「太陽病用承氣湯法」, 「太陽病用陷胸湯法」의 6湯法과 「太陽病雜療法」으로 되어 있다. 『千金翼方·傷寒』에서 太陽病의 편명에 특별히 다른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손사막이 특히 太陽病을 중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형식이 「太陽病用……湯法」이라는 점에서 중시한 것이 方임을 알 수 있다.

Table 7. The title of TaiYang disease chapter in 『Qianjinyifang-Shanghan』, 『Yuhanben』 and 『Songben』.

『千金翼方·傷寒』, 『玉函本』, 『宋本』에서 太陽病 篇名.

傳本	六經의 篇名
『千金翼方·傷寒』	「太陽病用桂枝湯法第一」 혹은 「陽明病狀」
『玉函本』	「辨太陽病形證治」
『宋本』	「辨太陽病脈證并治」

『千金翼方·傷寒』에서 宜忌篇은 다른 판본의 可與不可篇에 해당한다. 『玉函本』, 『脈經本』, 『宋本』에서

中醫藥大學. 碩士學位論文. p.11.)도 唐代에 隋文帝 楊堅의 이름을 피휘한 『隋本』과 피휘하지 않은 『六朝本』이 함께 전해졌을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隋文帝 楊堅의 이름을 피휘하지 않은 『唐本』과 『玉函本』은 隋朝의 수정을 거치지 않은 『六朝傳本』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있다.

는 모두 “可”와 “不可”로 편명을 삼았는데, 오직 『千金翼方·傷寒』에서만 篇(章)명을 “宜忌”로 하였다. 또한 『千金翼方·傷寒』에서는 “傷寒”이라는 말을 “宜忌”앞에 더하여서, “傷寒宜忌”라는 제목을 15章의 宜忌 앞에 두었다. 즉 다른 판본에서는 篇에 해당하는 宜忌 15가지가 『千金翼方·傷寒』에서는 「傷寒宜忌」篇의 宜忌 15章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손사막이 이러한 “傷寒宜忌” 제목을 됴으로써 『千金翼方·傷寒』은 證과 方을 논하는 六經篇과 傷寒의 治法에 대해 논하는 宜忌篇으로 선명하게 구분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篇章의 변화는 汗, 吐, 下, 溫, 火, 灸, 刺, 水 8法으로 傷寒을 치료할 때 마땅히 행하여야 할 것과 꺼리는 것을 각성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

Table 8. The title of Yiji unit in 『Qianjinyifang-Shanghan』 and the title of Keyubuke chapter in 『Yuhanben』, 『Maijingben』 and 『Songben』.

『千金翼方·傷寒』에서 宜忌 章名과 『玉函本』, 『脈經本』, 『宋本』에서 可與不可 篇名.

『千金翼方·傷寒』	『玉函本』	『脈經本』	『宋本』
傷寒宜忌			
1.忌發汗	1.辨不可發汗病形證	1.病不可發汗證	1.辨不可發汗病脈證并治
2.宜發汗	2.辨可發汗病形證治	2.病可發汗證	2.辨可發汗病脈證并治
		3.病發汗以後證	3.辨發汗後病脈證并治
3.忌吐	3.辨不可吐病形證治	4.病不可吐證	4.辨不可吐
4.宜吐	4.辨可吐病形證治	5.病可吐證	5.辨可吐
5.忌下	5.辨不可下病形證治	6.病不可下證	6.辨不可下病脈證并治
6.宜下	6.辨可下病形證治	7.病可下證	7.辨可下病脈證并治
	7.辨發汗吐下後病形證治	8.病發汗吐下以後證	8.辨發汗吐下後病脈證并治

7.宜溫	8.辨可溫病形證治	9.病可溫證	
8.忌火	9.辨不可火病形證治		
9.宜火	10.辨可火病形證治		
10.忌灸	11.辨不可灸病形證治	10.病不可灸證	
11.宜灸	12.辨可灸病形證治	11.病可灸證	
12.忌刺	13.辨不可刺病形證治	12.病不可刺證	
13.宜刺	14.辨可刺病形證治	13.病可刺證	
14.忌水	15.辨不可水病形證治	14.病不可水證	
15.宜水	16.辨可水病形證治	15.病可水證	
		16.病不可火證	
		17.病可火證	

2. 『千金翼方·傷寒』과 『玉函本』, 『宋本』 비교

1) 三陰三陽의 太陽篇

太陽篇은 『傷寒論』에서 조문 수가 가장 많은 篇으로 판본에 따라 다른 분류 방법을 취하고 있다. 『千金翼方·傷寒』은 太陽篇을 7法으로 분류하고, 『玉函本』은 上, 下 2부분으로 나누었으며, 『宋本』은 上, 中, 下 3편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같이 太陽篇을 分合한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각 판본 편집자의 의도가 서로 달랐다고 볼 수 있다. 『千金翼方·傷寒』이 세 판본 가운데 太陽篇을 유독 세분화 하여 분류한 방식이 눈에 띄는데, 손사막이 이렇게 편집한 의도는 무엇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손사막은 특별히 『千金翼方·傷寒』의 太陽篇을 편명, 7法분류, 比類相附 조문 배열 등 여러 부분에서 편집을 했다. 三陰三陽 편명 중에서도 太陽篇만 「太陽病用…湯法」으로 편명을 별도로 지었고, 조문 배열을

같은 類의 方끼리 편집하여 桂枝湯, 麻黃湯, 靑龍湯, 柴胡湯, 承氣湯, 陷胸湯 6湯은 독립된 篇으로 삼았다. 때문에 方이 분류 기준이 되었고, 이러한 방식은 『傷寒論』 方證體系의 始初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三陰三陽의 厥陰篇

厥陰篇은 三陰三陽의 마지막 篇인데, 『千金翼方·傷寒』과 『宋本』은 각각 「厥陰病狀」과 「辨厥陰病脈證并治」 1개의 篇으로 되어 있고, 『玉函本』은 「辨厥陰病形證治」, 「辨厥利嘔噦病形證治」 2개의 篇으로 나뉘어져 있다. 『玉函本』은 「辨厥陰病形證治」에 4개 조문을 배열하고, 나머지 조문은 「辨厥利嘔噦病形證治」에 두었으나, 『千金翼方·傷寒』과 『宋本』에서는 모두 한 곳에 모아 배열하였다. 이에 대해 김상현의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玉函本』의 변증론치 체계는 三陰三陽病 正形證, 三陰三陽篇內 附屬形證, 三陰三陽病 外形證 3범주로 되어 있고, 「辨厥利嘔噦病形證治」는 三陰三陽病 外形證 범주에 속하여 「辨厥陰病形證治」 외곽에 독립된 篇이었다. 『宋本』은 「辨厥陰病形證治」 篇이 1단계의 三陰三陽病 正形證인 「辨厥陰病形證治」에 혼입된 것이다. 교정의서국이 『宋本』을 교정할 당시 손사막의 경우를 따라 “厥利嘔噦”을 厥陰病篇에 속하였고, 이 때 「辨厥陰病脈證并治」의 표제 뒤에 小字로 “厥利嘔噦附”라고 주석을 붙여 놓았지만, 후에 成無己가 『注解傷寒論』에서 이 小字 주석을 삭제하여 “厥利嘔噦”을 “厥陰病”과 하나로 인식하게 되었다.¹³⁴⁾

이상에서 살펴본 『千金翼方·傷寒』, 『玉函本』, 『宋本』의 三陰三陽 分合 방식을 비교해보면, 손사막은 太陽篇을 세분화 하여 『傷寒論』 方證體系를 열었고, 厥陰篇은 외곽에 독립된 篇과 속함으로써 “厥陰病”의 범주가 넓어졌음을 알 수 있다.

3) 三陰三陽篇 조문 비교

『千金翼方·傷寒』을 두 번째로 독립시켜 校注한 錢超塵은 『唐本』과 『玉函本』, 『宋本』의 三陰三陽 조

문이 기본적으로 서로 같으므로 이 세 판본이 하나의 공동된 祖本에서 분리 되었으며, 전승되는 동안 岐出되었을 것이라 추정하였다.¹³⁵⁾ 그동안 판본 간 조문 비교 연구에서는 특히 『唐本』의 三陰三陽 조문이 『玉函本』과 일치하는 경우가 『宋本』보다 많다고 하였다. 아래의 Table 9.는 祝의 연구결과를 참고하였고, 『唐本』과 『玉函本』의 해당 조문 주석을 첨가했다. Table 9.에서 『宋本』의 번호는 祝의 논문에서 『宋本』에 직접적으로는 없으나, 관련이 있다고 고찰한 『宋本』의 조문 번호이다.¹³⁶⁾

이 조문들 가운데 20, 21, 57(『唐本』번호 기준)은 특히 『宋本』의 三陰三陽篇에서 결여되어 있는 조문으로 『宋本』의 三陰三陽篇을 보충할 가능성이 있는데 의미가 있는 조문들이다.

Table 9. The missed sanyinsanyang provisions in 『Songben』 are in 『Dangben』 and 『Yuhanben』 accordantly.

『唐本』과 『玉函本』에서 일치하고 『宋本』에 결여된 三陰三陽 조문 (번호는 『唐本』)	『宋本』
18. 太陽病, 其脈浮. ¹³⁷⁾¹³⁸⁾	1.
20. 太陽中風, 發熱而惡寒.¹³⁹⁾¹⁴⁰⁾	2.
21. 太陽病, 三四日不吐下, 見衄乃汗之.¹⁴¹⁾¹⁴²⁾	6.
57. 傷寒一日, 太陽脈弱, 至四日, 太陰脈大.¹⁴³⁾¹⁴⁴⁾	3.
65. 脈浮而緊, 浮則爲風, 緊則爲寒, 風則傷衛, 寒則傷榮, 榮衛俱病, 骨節煩疼, 可發其汗. ¹⁴⁵⁾¹⁴⁶⁾	55.
173. 夫病陽多者, 熱, 下之則堅, 汗出多, 極發其汗亦堅. ¹⁴⁷⁾¹⁴⁸⁾	203.

135)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前言p.10.

136) 祝世峰. 『金匱玉函經』與唐本『傷寒論』比較研究. 北京中醫藥大學. 碩士學位論文. p.24.

137)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15.

134) 김상현 外4人. 『金匱玉函經』의 成書 배경과 學說체계. 대한한의학회지. 2016. 29(4). p.119.

4) 宜忌篇 조문 비교

『唐本』의 번호는 三陰三陽의 조문 비교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였다. 『唐本』의 조문에 번호를 붙인 뒤 전초진이 校注한 『唐本傷寒論校注』를 참고하여 宜忌에서 『宋本』에 없는 조문을 선택했다. 다시 이 조문들이 『玉涵本』과 『脈經本』에 있는지 그 有無를 확인하였다. 이렇게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宋本』에 결여된 宜忌의 여러 조문이 『唐本』, 『玉涵本』, 『脈經本』에서는 대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결론짓게 되었다. 김상현의 연구에서도 『玉涵本』은 『宋本』보다 많은 분량의 조문들을 諸可不可에 포함시키고 있다 하였는데¹⁴⁹⁾, 이번엔 조사한 자료와 연결 지어 보면, 『傷寒論』의 本본인 『唐本』과 『脈經本』도 『宋本』보다 많은 분량의 조문들을 可不可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可不可의 소절이 Table 8.에서와 같이 『脈經本』 8法 17篇, 『玉涵本』 8法 16篇, 『唐本』 8法 15章인데, 『宋本』에서 3法 8篇으로 간략화 된 것은 『傷寒論』 초기 형태보다 『宋本』에 이르러서 可不可의 비중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138) 李順保校注. 金匱玉函經.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20.
 139)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16.
 140) 李順保校注. 金匱玉函經.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20.
 141)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16
 142) 李順保校注. 金匱玉函經.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21.
 143)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46.
 144) 李順保校注. 金匱玉函經.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20.
 145)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51. 『唐本』은 문장 뒤에 “宜麻黃湯”이 있다.
 146) 李順保校注. 金匱玉函經.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16.
 147)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152
 148) 李順保校注. 金匱玉函經. 北京. 學苑出版社. 2005. p.45.
 149) 김상현 外4人. 『金匱玉函經』의 成書 배경과 학술 체계. 대한한의학회지. 2016. 29(4). p.119.
 150)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266. 『唐本』은 “冬時忌發其汗, 發其汗必吐利, 口中爛, 生瘡. 咳而小便利, 若失小便, 忌攻其表, 汗則闕, 逆冷.”으로 되어 있으나 『宋本』에는 “冬時忌發其汗, 發其汗

Table 10. The missed yiji provisions in 『Songben』 are in 『Dangben』.

『宋本』에 결여된 『唐本』의 宜忌 조문.

번호 (『唐本』)	『宋本』에 결여된 『唐本』의 宜忌 조문	『玉涵本』	『脈經本』
忌發汗			
358	冬時忌發其汗, 發其汗必吐利, 口中爛, 生瘡. (17자만 없음) ¹⁵⁰⁾	○	○
宜發汗			
364	凡脈浮者, 病在外, 宜發其汗. ¹⁵¹⁾	x	○
366	陽明病, 脈浮虛者, 宜發其汗. ¹⁵²⁾	x	x
宜溫			
415	大法, 冬宜服溫熱藥. ¹⁵³⁾	○	○
419	下利, 脈遲緊爲痛, 未欲止, 宜溫之. ¹⁵⁴⁾	○	○
420	下利, 脈浮大者, 此爲虛, 以強下之故也. 宜溫之, 與水必喙. ¹⁵⁵⁾	○	○
424	下利飲食者, 宜就溫之. ¹⁵⁶⁾	○	○
宜火			
432	凡下利, 谷道中痛, 宜炙枳實若熬鹽等熨之. ¹⁵⁷⁾	○	○
忌刺			
442	大怒無刺, 新內無刺, 大勞無刺, 大醉無刺, 大飽無刺, 大渴無刺, 大驚無刺. 無刺焯焯之熱, 無刺淥淥之汗, 無刺渾渾之脈, 無刺病與脈相逆者. 上工刺未生, 其次刺未盛, 其次刺其衰. 工逆此者, 是謂伐形. ¹⁵⁸⁾	○	○
宜刺			
449	婦人傷寒, 懷身, 腹滿, 不得小便, 加從腰以下重, 如有水氣狀. 懷身七月, 太陰當養不養, 此心氣實, 宜刺, 寫勞宮及關	○	○

	元, 小便利則愈. ¹⁵⁹⁾		
450	傷寒喉痺, 刺手少陰穴, 在腕當小指候動脈是也. 針入三分補之. ¹⁶⁰⁾	○	○
忌水			
453	下利, 其脈浮大, 此爲虛, 以強下之故也. 設脈浮革, 因尔腸鳴, 當溫之, 與水必喙. ¹⁶¹⁾	○	○
宜水			
457	嘔而吐, 膈上者, 必思煮餅, 急思水者, 與五苓散飲之, 水亦得也. ¹⁶²⁾	○	○
發汗吐下後病			
460	發汗後身熱, 又重發其汗, 胃中虛冷, 必反吐也. ¹⁶³⁾	x	x
488	大下後, 口燥者, 裏虛故也. ¹⁶⁴⁾	○	x

- 必吐利, 口中爛, 生瘡.” 17자가 없고 “咳而小便利, 若失小便, 忌攻其表, 汗則闕, 逆冷.”로 되어 있다.
- 151)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269.
- 152)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269.
- 153)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283.
- 154)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283.
- 155)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284.
- 156)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285.
- 157)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287.
- 158)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290.
- 159)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293.
- 160)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293.
- 161)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294.
- 162)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295.
- 163)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지금까지 서술한 내용은 다음 목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Table 11.의 맨 앞에 오는 번호는 卷을 의미하며, 뒤에 오는 번호는 篇과 章을 순서대로 붙인 것이다.

Table 11. The table of contents in 『Qianjinyifang·shanghan』, 『Yuhanben』, 『Majingben』 and 『Songben』.

『千金翼方·傷寒』, 『玉函本』, 『脈經本』, 『宋本』의 篇次.

『千金翼方·傷寒』	『玉函本』	『脈經本』	『宋本』
	1-1.證治總例		1-1.辨脈法
	2-2.辨瘧濕喝		1-2.平脈法
	2-3.辨脈		2-3.傷寒例
			2-4.辨瘧濕喝脈證
9-1.太陽病用桂枝湯法	2-4.辨太陽病形證治上		2-5.辨太陽病脈證并治上
9-2.太陽病用麻黃湯法	3-5.辨太陽病形證治下		3-6.辨太陽病脈證并治中
9-3.太陽病用青龍湯法			4-7.辨太陽病脈證并治下
9-4.太陽病用柴胡湯法			
9-5.太陽病用承氣湯法			
9-6.太陽病用陷胸湯法			
9-7.太陽病雜療法			
9-8.陽明病狀	3-6.辨陽明病形證治		5-8.辨陽明病脈證并治

1994. p.297.
- 164)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p.319.

9-9.少陽病狀	3-7.辨少陽病形證治		5-9.辨少陽病脈證并治
10-10.太陰病狀	4-8.辨太陰病形證治		6-10.辨太陰病脈證并治
10-11.少陰病狀	4-9.辨少陰病形證治		6-11.辨少陰病脈證并治
10-12.厥陰病狀	4-10.辨厥陰病形證治		6-12.辨厥陰病脈證并治
	4-11.辨厥利嘔噦病形證治		
	4-12.辨霍亂病形證治		7-13.辨霍亂病脈證并治
10-13.傷寒宜忌	4-13.辨陰陽易差後勞復病形證治		7-14.辨陰陽易差後勞復病脈證并治
10-13-1.忌發汗	5-14.辨不可發汗病形證治	7-1.病不可發汗證	7-15.辨不可發汗病脈證并治
10-13-2.宜發汗	5-15.辨可發汗病形證治	7-2.病可發汗證	7-16.辨可發汗病脈證并治
		7-3.病發汗以後證	8-17.辨發汗後病脈證并治
10-13-3.忌吐	5-16.辨不可吐病形證治	7-4.病不可吐證	8-18.辨不可吐
10-13-4.宜吐	5-17.辨可吐病形證治	7-5.病可吐證	8-19.辨可吐
10-13-5.忌下	5-18.辨不可下病形證治	7-6.病不可下證	9-20.辨不可下病脈證并治
10-13-6.宜下	5-19.辨可下病形證治	7-7.病可下證	9-21.辨可下病脈證并治
	6-20.辨發汗吐下後病形證治	7-8.病發汗吐下以後證	10-22.辨發汗吐下後病脈證并治
10-13-7.宜溫	6-21.辨可溫病形證治	7-9.病可溫證	
10-13-8.忌火	6-22.辨不可火病形證治		

10-13-9.宜火	6-23.辨可火病形證治		
10-13-10.忌灸	6-24.辨不可灸病形證治	7-10.病不可灸證	
10-13-11.宜灸	6-25.辨可灸病形證治	7-11.病可灸證	
10-13-12.忌刺	6-26.辨不可刺病形證治	7-12.病不可刺證	
10-13-13.宜刺	6-27.辨可刺病形證治	7-13.病可刺證	
10-13-14.忌水	6-28.辨不可水病形證治	7-14.病不可水證	
10-13-15.宜水	6-29.辨可水病形證治	7-15.病可水證	
10-14.發汗吐下後病狀		7-16.病不可火證	
10-15.霍亂病狀		7-17.病可火證	
10-16.陰易病已後勞復	6-30.論熱病陰陽交并生死證	7-18.熱病陰陽交并少陰厥逆陰陽竭盡生死證	
		7-19.重實重虛陰陽相附生死證	
		7-20.熱病生死期日證	
		7-21.熱病十逆死證	
		7-22.熱病五臟氣絕死日證	
		7-23.熱病至脈死日證	

		7-24. 熱病損脈死日證	
--	--	---------------	--

III. 考察 및 結論

『傷寒論』이 成書된 이래, 많은 판본이 나타났지만,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판본은 많지 않다. 『千金翼方·傷寒』은 북송 교정의서국이 1065년 『宋本』을 표준본으로 삼은 이후, 『玉函本』과 함께 『傷寒論』의 이중 판본으로 1066년 교정의서국 사업에 포함되어 교정, 간행 되었다.¹⁶⁵⁾ 그리고, 『千金翼方·傷寒』은 오늘날 중국 판본학계 감정을 거친 끝에 『傷寒論』의 공식 판본으로 확정된 8종 『唐本』, 『宋本』, 『玉函本』, 『成本』, 『高繼沖本』, 『敦煌本』, 『康平本』, 『康治本』에도 포함되었다.¹⁶⁶⁾ 『千金翼方·傷寒』이 1000여 년의 시간을 넘어 보존된 데는 다른 판본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千金翼方·傷寒』은 唐代 임상가였던 손사막이 撰한 醫書로, 『千金翼方·傷寒』의 저본은 『傷寒論』의 상당히 이른 시기의 판본으로 추정된다. 이 책은 다른 판본에서 보이지 않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다.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으로 “方證同條, 比類相附”를 들 수 있다. 같은 類의 方조문끼리 相附하고, 先論後方으로 되어있던 方을 證아래 이어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흩어져 있던 方조문들이 모임으로써 太陽病篇이 桂枝湯, 麻黃湯, 靑龍湯, 柴胡湯, 承氣湯, 陷胸湯 6湯法으로 편제가 가능해졌고, 손사막은 이와 같이 정리된 太陽病을 별도로 「太陽病用…湯法」이라고 편명을 바꾸었다. 湯의 조문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어 湯조문을 찾아보는데 번잡함이 줄어들었고, 여기에 더불어 方의 구성약물, 전탕법, 복용법을 함께 두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변화는 또 다른 변화를 불

러왔는데, 편제의 변화이다. “先論後方”이 “方證同條”가 됨으로써, 별도의 方을 싣고 있던 篇을 두지 않게 되었다. 예를 들어 『玉函本』의 경우 卷7, 卷8에 方들을 모아 두었는데, 『千金翼方·傷寒』에서는 이렇게 方을 싣고 있는 篇을 따로 두지 않아 篇수가 적어졌다. 그리고 이와 같은 “方證同條” 형식은 훗날 북송 교정의서국에서 『宋本』에 적용하여, 오늘날 『傷寒論』을 편리하게 활용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¹⁶⁷⁾ 즉, 지금은 익숙한 『傷寒論』의 “方證同條” 형식은 손사막이 『千金翼方·傷寒』에서 처음으로 창안하면서 시작되었다.

『千金翼方·傷寒』에서는 瘧·濕·暍 조문이 「太陽病用桂枝湯法」에 포함되고, 『玉函本』에는 분리되어 있는 「辨厥陰病形證治」와 「辨厥利嘔噦病形證治」가 「厥陰病狀」에 합해져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傷寒과 瘧·濕·暍의 구분이 용이해졌고, 厥陰病의 범위가 넓어졌다. 북송 교정의서국에서 『宋本』을 교정할 당시 「辨厥陰病形證治」와 「辨厥利嘔噦病形證治」를 합한 『千金翼方·傷寒』의 체례방식을 따라 『宋本』또한 厥陰病이 「辨厥陰病脈證并治」 1편으로 편제되어 있다. 古文書의 성립시기를 판별하는데 도움이 되는 避諱는 隋文帝 楊堅의 이름에 쓰인 “堅”字와 宋의 始祖인 趙玄朗의 諱를 모두 피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千金翼方·傷寒』의 저본이 『傷寒論』의 상당히 이른 시기의 판본이라는 데 힘을 실어준다. 宜忌篇도 宜忌 15章 앞에 “傷寒宜忌”라는 제목을 둠으로써 證과 方을 논하는 三陰三陽篇과 傷寒의 治法에 대해 논하는 宜忌篇의 구분이 선명해졌다.

이상에서 『千金翼方·傷寒』을 살펴본 결과 북송 교정의서국에 의해 『傷寒論』 표준본이 된 『宋本』에 『千金翼方·傷寒』의 많은 모습이 반영되어 있었다. 논자는 이러한 독특한 편집 방식이 북송 교정의서국에서도 높이 평가 되어 『傷寒論』 표준본이 있음에도 『千金翼方·傷寒』이 다시 교정의서국 사업에 추가되게 한 점이라고 보았다.

165) 김상현 외4인. 『金匱玉函經』의 成書배경과 학술체계.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6. 29(4). p.109.

166) 김상현 외4인. 『金匱玉函經』의 成書배경과 학술체계.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6. 29(4). p.106.

167) 김상현 외4인. 『金匱玉函經』의 成書배경과 학술체계.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6. 29(4). p.110.

『千金翼方·傷寒』, 『脈經本』, 『玉涵本』, 『宋本』의 三陰三陽篇과 宜忌篇 조문 비교는 『千金翼方·傷寒』과 『玉涵本』과 『宋本』이 큰 틀에서는 유사하여 하나의 祖本에서 출발하였으나 이후 세 판본으로 갈라졌고, 『千金翼方·傷寒』과 『玉涵本』이 더 가까운 연관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이로부터 발견한 『宋本』에 결여된 『千金翼方·傷寒』의 三陰三陽篇과 宜忌篇의 조문은 오늘날의 통행본인 『宋本』의 판본적 결여를 보완하는데 근거가 될 수 있다.

3C 초반 張仲景이 『傷寒論』을撰하고, 400여년 뒤에 손사막이 『千金翼方·傷寒』을 저술했다. 다시, 400여년 뒤 11C 북송 교정의서국이 『傷寒論』과 『千金翼方·傷寒』을 교정, 간행했다. 『千金翼方·傷寒』은 3C, 7C, 11C라는 800여년의 시간 축 가운데에서 『傷寒論』전승 과정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임상가였던 손사막이 “方證同條, 比類相附”를 창안함으로써 『傷寒論』은 형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책을 보는 이들이 알기 쉽게 되었다. 더 나아가 오늘날 『傷寒論』연구와 임상에 활용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References

1. Domok YY. Wood carving Shanghan Lun in Song-Dynasty Edition. Tokyo. Natural Science House. 1991.
稻木一元, 小曾戶洋, 松田邦夫. 翻刻宋版傷寒論. 東京. 自然と科學社. 1991.
2. Huang F et al.. Brief on the Main Versions of Shanghan Lun. World Journal of Integrated Traditional and Western Medicine. 2014. 9(12).
黃飛 外4人. 『傷寒論』主要板本簡略. 世界中西醫結合雜誌. 2014. 9(12).
3. Li SB. Jinkuiyuhanjing. Beijing. Xue yuan Publishing House. 2005.
李順保校注. 金匱玉函經. 北京. 學苑出版社. 2005.
4. Li SB. The contemplation of Shanghan Lun in Tang-Dynasty Edition. LinL. Shanghan Lun Banben Daquan. Beijing. Xue yuan Publishing House. 2000.
李順保. 『唐本傷寒論』考. 林霖. 傷寒論板本大全. 北京. 學苑出版社. 2000.
5. Qian CC. Brief on the Versions of Qianjinyifang. Chinese Medical Culture. 2012. 2012(3).
錢超塵. 『千金翼方』版本簡考. 中醫藥文化. 2012. 2012(3).
6. Qian CC. Shanghan Lun in Tang-Dynasty Edition. Beijing. China Medical Science Press. 1994.
錢超塵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4.
7. Sun SM. Qian Jin Yi Fang. Beijing. People's Health Publishing House. 1955.
孫思邈著. 千金翼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55.
8. Wang SH (author), Fan DM (exegetist). Maijing. Scientific and Technical documentation press. 2010.
王叔和著. 范登脈校注. 脈經.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10.
9. Wei YY. Structure comparison of “Treatise on Febrile Diseases” in Tang-Dynasty Edition and Song-Dynasty. Qiang ZJ. Knowledge of Ancient Medical Literature. Shanghai University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01. 2001(4).
衛雲英. 唐本與宋本『傷寒論』結構比較. 張智強. 醫古文智識. 上海中醫藥大學. 2001. 2001(4).
10. Yamada GG. Chinese Medicine is how did it start. Park. Science Books. 2002.
야마다게이지. 中國의학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박상준. ㈜사이언스북스. 2002.
11. Zhang ZJ (author), Tang YX, Xiong YM (exegetist). Jinkuiyaoluefanglun comment

- Chapter. Chuan JH. Jinkuiyaoluefanglun comment· Xiaoyeryaozhengzhijue comment. Beijing. China Renmin University House. 2010.
- 張仲景著. 湯一新, 熊維美注. 金匱要略方論釋注. 傅景華. 金匱要略方論釋注·小兒藥證直訣釋注.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10.
12. Cai TR. Naming Taboo in China historical report and a role of literature review. Journal of Nanjing University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Social Science Edition). 2017. 9(18).
- 蔡鐵如. 中醫古籍中的避諱及其在文獻研究中的作用探討. 南京中醫藥大學學報. 2017. 9(18).
13. Eom HS. A comparative research between Shanghan Lun and Shang han in 『Qian Jin Yi Fang』. Dong-eui University, journal of Dong-eui. 29. A chapter of Natural Science. 1998. 8.
- 嚴賢燮. 『千金翼方』傷寒과 『傷寒論』의 比較研究. 東義大學校 東義論集 第29輯. 自然科學篇. 1998. 8.
14. Kim SH et al.. A Study on the Theoretical System and Publication Background of Jinkuiyuhanjing.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16. 29(4).
- 김상현 外4人. 『金匱玉函經』의 成書배경과 학술체계.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6. 29(4).
15. Lyeom YH et al.. A Literary Study on Jinguiyuhanjing. Korean Journal of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2002. 16(1).
- 염용하 外3人. 『金匱玉函經』에 관한 문헌적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2. 16(1).
16. Park JY. The study of Shanghan in Sun, si-miao's 『Qian Jin Yi Fang』. Graduate School, Daejeon University. Dept. of Oriental Medical History. 2010.
- 朴志英. 『千金翼方·傷寒』에 대한 研究. 大田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10.
17. Qian CC. Study of 『Bian Shang han』 included in 『Qian Jin Yi Fang』 (xia). World Journal of Integrated Traditional and Western Medicine. 2014. 9(5).
- 錢超塵. 『千金翼方』載錄的 『辨傷寒』考(下). 世界中西醫結合雜誌. 2014. 9(5).
18. Xiao XR. Specific herb medical evidence-The essence of Shanghan Lun Herb Medical Evidence. Liaoning Journal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6. 43(11).
- 肖相如. 特異性方證-『傷寒論』方證中的精華. 遼寧中醫雜誌. 2016. 43(11).
19. Yoon CY. A study on the origin, type and methods of Naming Taboo.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09. 22(2).
- 윤창열. 避諱의 유래와 종류, 방법에 관한 고찰.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9. 22(2).
20. Zhu SF. A comparative research between Jinkui Yuihanjing and Tang-Dynasty-version Shanghan Lun. Beijing University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A master's Thesis. 2012.
- 祝世峰. 『金匱玉函經』與唐本『傷寒論』比較研究. 北京中醫藥大學. 碩士學位論文. 2012.